



「대한설비기술연구소」 연내 설립예정

「설비연구소」의 설립은 그동안 설비업계의 숙원인 하자사례의 정확한 분석 및 불량자재 시험판정 등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로 억울한 피해사례를 근절 시키는 물론 공법개발 등으로 설비업계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협회 부설 「대한설비기술연구소(가칭)」가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실험장비 구입 및 연구진을 물색중에 있다.

「대한설비기술연구소」의 설립은 그동안 설비업계의 숙원인 하자사례의 정확한 분석 및 불량자재 시험판정 등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로 억울한 피해사례를 근절시키는 물론 공법개발 등으로 설비업계의 위상을 정립시키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데다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업자에게 미루어 우리 설비업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당했었다.

회원사 안내 광고비로 기금 조성

얼마전 롯데월드에서 일어난 스팀배관 폭발 사고가 시공상의 잘못인지, 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있고, 최근 모 회원사가 시공한 ○○아파트 신축설비공사가 준공한지 1년도 채 안되어 아연도강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 무조건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피해를 당해, 본 협회에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고 본 협회가 조사한 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해사(바다모래)를 강관 배관의 매립형 모르타르로 사용,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이 콘크리트 바닥의 경사진 곳을 따라 흘러내려와 집중적으로 고여있는 곳에서 강관의 국소부식을 발생시켜 누수의 하자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설비관련 실험소의 부재로 정확한 실험치 제시를 못한 것이 몹시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한설비기술연구소」의 발족은 이러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는 물론 설비업계의 발전을 위한 하자사례를 접수, 정확한 실험치에 의한 근거를 두고 중재 및 조정역할을 할 방침이다.

본 협회가 지난해 집계한 수수실적은 1조 3천억원으로 약 3%인 4백억원 정도가 발주자에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설비회원사의 시공잘못이 아닌 하자임에도 설비업자의 책임으로 쓰여지고 있는 억울한 사례도 있으므로, 「대한설비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하자책임소재를 판별한다면 상당부

분의 하자보수금 지출이 설비업계에 축적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설비기술연구소」는 해외 유수의 설비 연구소와 연계를 맺고 국내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해외에까지 의뢰 할 예정이며, 자재 및 공법개발, 설비시공에 관한 연구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원사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본 협회 이동락회장은 “설비업계의 무방비 상태에서 개방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대한설비기술연구소」의 설립은 우리 전 회원사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기술개발, 불량자재 시험 판정 및 기술관련 합리적 제도 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실험에 의한 하자사례의 정확한 진단에 자못 기대가 크다고 덧붙인다.

「대한설비기술연구소」는 현재 본 협회가 상주하고 있는 군자동의 대일빌딩 지하1층에 1백억평 규모의 실험실이 준비돼 있으며 연구진도 국내 유수의 연구진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오는 10월 이 연구소가 발족되면, 국내에 있는 협회 차원에서는 최초의 연구소가 되므로 회원사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